



'삿포로 국제 예술제2014'는 삿포로 첫 국제적인 아트페스티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인 사카모토 류이치씨를 게스트 디렉터로 맞이하여 7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72일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개최 테마는 '도시와 자연'.

도시와 자연의 앞으로의 공생을 생각하는 국제예술제로서 세계에서 활약중인 현대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시내 각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미술관은 물론 삿포로 전체가 예술제의 무대가 됩니다.



성인 1100엔
다른 전시회 표
구매시
할인됩니다.

홋카이도립 근대 미술관 전시실A의 1층은 테마 '도시와 자연' 중에서도 도시화, 근대화에 쟁점을 맞춰 오카베 마사오의 유바리 폐광 프라타주 작품을 시작으로 구도 데쓰미와 스보드 굽타의 박력 있는 조각, 그리고 안젤름 키퍼의 인스태레이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탄광사부터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의 전환기와 그 사회적 배경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현대인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근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2층에서는 하타케야마 나오야의 사진과 삿포로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눈'을 테마로 아트와 과학의 시각에서 도시와 자연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칼스텐 니콜라이, 다카타니 시로의 눈을 테마로 한 작품 전시와 더불어 나카야 우키치로의 눈의 결정을 찍은 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근대 미술관은 1977년 삿포로 중심가에 개설됐습니다. 홋카이도의 지역성과 국제성을

배경으로 여러가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개성있고 다채로운 전시회 개최, 다양한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전시하고 있는 「하계명물선」에서는 에밀 가레의 작품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카레가 특별전시 '이후쿠베 아키라, 가케가와 겐이치로'전

SIAF2014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사업의 공통점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홋카이도의 역사를 더듬는 것입니다. 아카레가청사에서는 홋카이도와 인연이 깊은 이후쿠베 아키라와 가케가와 겐이치로의 문화적 공적을 기려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고질라'의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이후쿠베 아키라는 홋카이도 구시로정(현 구시로시)출신 작곡가로 친필 악보와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악을 제공한 과학 영화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가케가와 겐이치로는 홋카이도 무로란정(현 무로란시)출신 사진작가로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누 민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과 직필 노트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이므로 아카레가 청사에 들러 특별전시를 관람해 주세요 (8월13일~9월28일)

제니바코(銭函) 선셋비치 불꽃놀이

8월2일에 제니바코 선셋비치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오타루시(小樽市)의 제니바코(銭函)에서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이벤트와 불꽃놀이를 해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 1만 발의 다채로운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외에 노래대회와 빙고대회, 댄스 이벤트 등도 열렸습니다. 여름엔 다양한 불꽃놀이가 홋카이도 각지에서 열립니다. 불꽃놀이를 보며 홋카이도의 여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비히로(帯広)



오비히로시(帯広市)는 홋카이도 동부 도카치(十勝)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7만명입니다. 1883년(메이지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척이 시작되어 바둑판 구조의 도로망 등 계획적으로 시가지를 형성해왔습니다.

또한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도카치 지방(약35만명)의 중심지로서 농산물 집적지, 상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비히로시는 눈이 쌓이는 한랭기후지만 토지조건이 좋아서 윤작 체계를 기반으로 밀가루, 사탕무, 콩, 감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밭농사, 낙농, 축산 등 대규모로 기계화된 토지 이용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비히로, 도카치의 농축산물은 '생산이력 표기', '잔류 농약 검사', '도카치형 GAP(도카치 고유의 통일된 생산 공정 관리법)'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후쿠역에 남아있는 열차. 열차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념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티켓을 고후쿠역에 붙여 놓은 모습

「아이코쿠(愛国)역에서 고후쿠(幸福)역까지」
 '사랑의 나라(愛国)에서 행복(幸福)으로' 라고 붐이 일어났던 당시의 표입니다.
 1986년 6월1일부터 1987년 2월 1일까지 실제로 판매되었던 '관광여행기념표' 입니다.



고후쿠역의 종. 연인들이 같이 종을 올리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반에이 도카치(十勝) (오비히로(帯広) 경마장)

반에이 경마는 다른 경마와 달리 거리 200m, 폭1.8m인 직선주로를 썰매를 끌며 달려 스피드와 파워를 겨룹니다. 제1장애물(언덕)은 높이 약 1m로 장애물을 넘어 중간 지점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제2장애물은 높이 약 1.6m로 이 장애물을 빠르게 넘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100엔(한화 약1000원)도 걸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경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걸지 않아도 말이 달리는 박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아카렌가 통신 파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